

● 일본의 양계소식

산란계

□ 2003년 계란 생산량 252만6천톤 예상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부식육계란과는 3월24일 전국계란수급조정협의회에서 2003년 계란생산량을 예상, 발표하였다. 식육계란과의 추정으로는 252만5천944톤으로 전년대비 0.5%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생산량은 2001년과 같다.

월별 생산량은 모두 2002년을 상회하며 생산증가분만을 본다면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수요가 증가되지 않아 도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회의에서도 (1)판매부진, (2)일부생산자의 사육수 증가, (3)인구증가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향후 1년간의 수급상황은 매우 비관적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2003년의 계란가격에 대해서도 년간수준에서 2002년보다 4엔 낮은 1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여름철의 수급조절이 염려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계란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2003년도 난가기금 보전기준가격 168엔

관심을 빌었던 2003년도 난가기금의 보전기준가격이 농협계열의 (사)전국계란가격안정기금은 4월24일에, 전계연계열(전국계란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전일본난가안정기금은 4월25일에 각각 평의위원회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에게 일임하고 그 후 농림수산성 등과의 절충결과 2002년도보다 1엔(円) 내린 168엔으로 결정하고 양기금은 농림수산성생산국장에게 승인을 얻었다.

2003년도 난가기금의 보전기준가격에 대하여 농협, 전계연 등 생산자단체는 다른 축산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난가기금의 기준가격을 회망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어린병아리의 입추수 증가로 금년도 계란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되어 난가도 전년을 밀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보전금지불이 많아지게 되어 보전기금의 재원이 걱정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년보다 1엔 낮은 168엔으로 되었다. 단지 4~6월의 보전이 대폭으로 이루어지면 금년 중에도 기준가격을 낮추고 재원이 더욱 적어지면 보전을 멈추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큐-피-(주) 가열살균 된 (3분계란) 3월부터 수도권에 판매

큐-피(주)는 가열살균 된 난각이 있는 (3분계란)을 업소용 중심으로 판매하였으나 이번에는 시판용 상품명을 (큐-피-따듯한 계란)으로 바꾸어 3월부터 수도권의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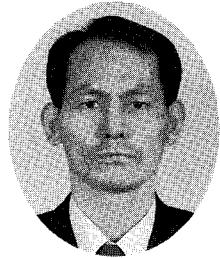
'99년 10월부터 업소용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3분계란)은 계란의 난각이 붙어 있는 상태로 거의 생란에 가까운 상태에서 가열살균하여 살모넬라를 사멸시키는 특수한 제법을 사용하고 있다. 살모넬라 걱정이 없고 생란 특유의 냄새도 없어 편의점의 도시락이나 카레, 우동 등의 외식체인점 등에서 이용되고 있어 판매량은 재작년에 약 1,600톤, 작년에 약 4,500톤으로 순조롭게 신장되고 있다.

시판용의 (큐-피- 따듯한 계란)은 계란의 더욱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 일반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난백은 반숙상태, 난황은 생란에 가까운 상태로 생란대신으로 계란을 얹은 밥이나 불고기 이외에 햄버거, 사라다 등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격	125	135	145	152	147	87	910t



윤 병 선

한일사료(주) 기술연구소 부소장
농학박사



육

□ 생계 출하중량 5% 억제 호소

닭고기가격의 급락으로 4월의 예상가격이 사상최저가를 보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생산과잉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동경의 넓적다리와 가슴고기 정육의 합계는 800엔(円)대로 떨어지고 산지에서는 비용이 상쇄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일본식조협회 생산가공부회는 BSE특수도 없어지고 수요도 늘지 않는 가운데 생산이 증가되고 있어 3월 25일 생산가공부회의에서 사육기간의 단축에 의한 출하중량의 억제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수급조절에 실패하여 4월 18일부터 생산가공부회를 임시로 열어 관세인하문제와 함께 수급문제를 검토한 결과 생닭의 출하중량을 전년도 실적의 5%까지 감축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각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게 되었다.

금년 1~2월의 닭고기 가계소비량은 2001년 BSE발생전의 수준보다 낮아져 있다. 한편, 생산출하수수는 1~2월에 전년대비 2~3% 증가한 상반된 결과가 되어 닭고기의 수급은 대폭 완화되어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원자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생닭의 출하중량을 전년도대비 5% 감산」의 실현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를 부탁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효고(兵庫縣) 닭고기 안전성 인증 제1호는 다지마(但馬)양계농협

효고(兵庫)은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된 대책을 실행하는 「효고(兵庫)식품위생관리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작년 10월 1일 식육과 닭고기를 대상으로 한 인증업무를 개시하였다. 제1호의 인증시설은 다지마푸드그룹의 다지마양계농업협동조합 닭고기 처리·식육시설로 3월 26일 인증을 받았다. 이곳은 ISO 9001을 인증을 취득하고 다지마식육위생검사소의 지도협력을 받아 HACCP 시스템을 도입한 경력이 있다.

이 제도는 효고(兵庫)내의 식품관련시설이 HACCP에서 생각한 기준에 의한 위생관리와 이력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지사(知事)가 인증하는 것이다. 닭고기에 대해서는 ①식육처리·가공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상태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 ②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농장단계에서 처리가공의 과정을 거쳐 판매에 이르는 이력추적이 가능할 것 등이 조건이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의 신청은 닭고기처리장은 해당시설을 소관하는 식육위생검사소가 연락창구가 된다.

현재 제2, 제3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닭고기처리장도 있어 효고(兵庫)에서는 더욱 많은 시설이 인증취득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서 닭고기안정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 3월 닭고기 수입실적 36,512톤

재무성관세국이 발표한 3월분 수입닭고기 통관실적은 전년동월대비 88.8%수준인 36,512톤으로 집계되었다.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뼈포함 넓적다리고기가 2,753톤 기타 닭고기가 33,759톤이며 이중 냉장닭고기는 뼈포함 넓적다리고기가 8톤, 기타 175톤으로 나타났으며 계육조제품은 19,423톤이었다.

1~3월까지의 수입누계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닭고기가 80.1%(이중 냉장고기는 28.3%)계육제품은 3.4% 증가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상세한 내용은 한일사료 기술연구소로 문의 바람 (031-280-4046)